

돌산을 일군 선조의 지혜... 살아있는 '농업 교과서'

농업유산
전남의 '오래된 미래'

1 완도 청산도 구들장논

산비탈에 구들장 깔고 흙 다져 조성
맨손으로 땅 개척...심 사람 애환 투영
멸종위기 구렁이 서식 '생명의 寶庫'
전통농법 전승...세계유산 등재 추진

“밥 없이 먹고 사는 삶은 빌어먹는 것보다 못하다. 호미 끝에 화두를 싣고 밭에서 살아라. 일은, 존재의 숙명이지. 거기서 생명의 들고나는 문을 발견하지 못하면 헛사는 일이다. 호미 놓지 말아라”
1700년대 말, 완도 청산도로 이주한 함양 박씨와 청주 한씨 일가의 마음은 목판화가 이철수의 이 글과 같았을 것이다. 농사는 이들의 생을 잇는 소중한 노동이었지만 거센 파도를 뚫고 도착한 이들에게 평탄한 삶은 허락되지 않았다. 땅에 풀이 많아 물을 가둘 수 없어 농사는 염두를 내지 못했다.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씨앗이 때가 되면 싹을 틔우듯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고 자연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산비탈을 깎은 뒤 흙집에 쓰는 구들장처럼 평평한 돌을 깔고, 그 위에 진흙을 쌓아 만든 청산도 구들장논은 그렇게 탄생했다.

◇선조의 과학적인 농사 지혜=지난 30일 오후 완도항에서 배로 50분을 달려 도착한 청산도 부흥리 구들장논에서는 마을 수확이 한창이었다. 국가농업유산 제1호로 지정돼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준비하고 청산도 구들장논은 특이하게도 벼와 마늘을 이모작한다. 5~6월에 마늘을 수확한 뒤 모내기를 하는 식인데,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이 모두 떠나 목하는 구들장논도 많았다. 이날은 먼 직원들까지 품앗이에 동원돼 마늘을 뽑고 묶는 작업을 도왔다.

이곳 구들장논은 전통농법에 쓰이는 낫따란 구들장을 논바닥에 깔고 그 위에 흙을 부어 만들었다. 산비탈에 논을 만들고, 물을 가두기 위해 염전처럼 인공적인 바닥을 만든 셈이다. 작은 논은 50~60평, 큰 논은 1000평에 달한다. 이곳 노인들은 너털경을 '덜지락'이라고 부르는데, 구들장논은 이 덜지락에서 가져온 돌을 사용했다고 한다. 아직도 이 섬에는 덜지락에서 돌을 고르고, 옮겨 구들장 논을 만드는 광경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다.

김홍표(82)씨는 “구들장논은 마을 사람들이 공동 작업을 해서 만들었고, 어린 시절 새로 논을 만들거나 여러 개의 논을 하나로 합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자주 봤다”고 말했다.

현재 완도군이 파악한 청산도의 구들장논은 부흥리, 양지리, 상서리 일대 57필지 4.9ha에 달한다. 하지만 목허둔 구들장논이 계속 발견되고 있어 그 넓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과학적인 물관리 시스템 확보=물을 가두기 위해 구들장을 사용한 것도 놀라운 발상이지만 구들장논은 과학적인 물관리 시스템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남은 물은 아래 논으로 흘러 보내는 것이 물관리의 핵심이다.



세계농업유산 등재가 추진되고 있는 완도 청산도 구들장논에는 척박한 땅에 널따란 돌을 깔아 논을 만든 선조의 지혜가 담겨 있다.

/청산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구들장은 개념도

통수로가 있는 자갈층 위에 구들장을 깔고 진흙을 탄탄히 쌓아 논물이 빠져나가지 않게 했다. 그 위에 벼가 자랄 수 있는 토양층을 다시 깔았다.



윗논에서 흐른 물이 배수구를 통해 빠져나오고 있는 모습.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물을 가두고 사용하는 것은 다른 지역의 다랑이논(계단식 논)과 비슷하지만 배수구의 위치가 독보적이다. 따로 수로를 만들지 않고, 논바닥 아래에 만들어 놓은 것이다. 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선조의 지혜가 묻어나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배수로는 위의 논과 아래의 논 사이 언덕에 있다. 마치 부엌 아궁이처럼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 했고, 논을 채운 물은 아래 배수로를 통해 다음 논으로

흐르는 형태다. 배수로는 사람 한 명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인데, 막히거나 무너졌을 때 수리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이처럼 한옥의 구조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 구들장논이다. 아궁이에 불 대신 물이 흐르고, 사 람이 아닌 모가 구들장 위에 있을 뿐이다.

또 배수로를 2~3개 만들어 놓은 것도 특징이다. 골짜기에서 내려온 차가운 물이 논으로 직접 흘러들어가면 모가 냉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배수

로를 만든 것이다. 물이 여러 개의 배수로로 분산돼 햇빛을 받아 자연스럽게 온도가 올라가는 원리를 적용한 것이다.

◇친환경 농법, 생명의 보고=이때 구들장논에 다가서면 놀레 논으로 뛰어드는 개구리를 흔하게 볼 수 있다. 태생 자체가 자연친화적이기 때문에 구들장논은 친환경 농법을 고수하고 있다. 모내기를 하려고 물을 받아 둔 논에서는 올챙이가 부화해 어지럽게 헤엄을 치고, 미꾸라지도 심심찮게 목격되고 있다.

트랙터 등 대형 농기계를 쓰면 구들장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모를 손으로 심고, 소형 농기계를 사용해 벼를 수확하고 있다. 구들장 위에 쌓은 진흙의 높이가 30cm가량이기 때문에 농기계를 쓰더라도 고무 바퀴로 교체해 사용한다.

잡초와 벌레 등은 제조제가 아닌 우렁이가 먹어치우고 있다. 구들장논 일대의 생물종도 다양해 멸종위기 1급 구렁이, 2급 긴꼬리투구새우 등이 서식하고 있다.

또 도롱뇽, 참개구리, 청개구리, 누룩뱀, 능구렁이, 도마뱀, 조롱이, 말뚝가리, 두견, 큰화색머리아비, 뽕논병아리, 가마우지, 왜가리 등 이름만 들어도 반가운 생명들이 많이 살고 있다.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본격화=청산도 주민들은 아직도 “청산도에서 쌀 두 말 먹고 시집가면 부잣집이다”는 말을 한다. 그만큼 논 농사에 적합한 땅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나마 구들장논이 있어 ‘쌀 두 말’이라도 먹을 수 있었던 것이다.

완도군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지정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세계중요농업유산은 지역 특성과 생물다양성이 유지되고 있는 곳을 지정, 보존하기 위한 제도

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노토반도와 사토야마, 중국 양쪽의 전통 벼 농업 등이 지정되는 등 세계 11개국 19개 지역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보존되고 있다.

2년에 한 번씩 서류심사와 현지답사 등을 통해 지정하고 있으며, 완도군은 올 12월 지정을 목표로 현장 실사를 준비하고 있다. 4~5일 FAO실무진과 전남도 농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FAO 현장실사를 최종 준비하는 현장시찰도 할 계획이다.

◇곳곳 허물어지는 등 보존 시급=완도군이 세계농업유산 등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농사를 짓지 않는 구들장논이 늘다 보니 자연스럽게 허물어지는 곳도 생겨나고 있어서다. 고령화로 아예 농사를 짓지 않으면 구들장논의 명맥이 사라질 수도 있다. 또 일부 주민은 구들장논에서 벼 농사를 짓지 않고, 마늘만 심어 구들장논의 기능이 사라져가고 있다.

그나마 지난 1월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돼 구들장논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완도군은 17억원을 들여 오는 2015년까지 정확한 현황을 조사하고, 부지를 구입하는 등 구들장논은 보전에 나선다.

구들장논 관리대장도 제작해 보존상태를 조사해 훼손된 곳을 재 정비하고, 물 확보를 위한 관정도 개발할 계획이다.

김중식 완도군수는 “현재 한국농어촌유산위원회 등 전문가와 협력해 구들장논을 조사하고 있으며, 보존과 복원을 통한 관광상품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청산도=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보약, 홍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
·마음에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90,000원

농협 653-12-003100
에금주 박주환